

경제

14

2019년 7월 26·27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5일

코스피지수	2074.48	↓	-7.82
코스닥지수	652.40	↓	-7.43
日 닷케이 지수	2만1756.55	↑	+46.98
中 상하이 종합	2937.36	↑	+14.08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30	↓	-0.02
환율 (원·달러)	1181.50	↑	+3.00
국내금값 (원/그램 g)	5만4105.72	↑	+126.11

네이버 2분기 영업익 1283억 기록 전년비 48.8% ↓ ... "라인페이 때문"

네이버는 2분기 매출 1조6303억 원, 영업익 1283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9.6% 증가했지만, 영업익은 48.8%나 감소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라인페이 송금 캠페인을 위한 일회성 비용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매출과 비중은 광고 1666억 원(10%), 비즈니스플랫폼 7159억 원(44%), IT플랫폼 1059억 원(7%), 콘텐츠서비스 501억 원(3%), 라인 및 기타플랫폼 5918억 원(36%)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신규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도전을 지속하고, 성장 단계와 성과에 맞춰 적시에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 사업 단위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용평리조트 '발왕산 알파카 골드팜' 운영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이하 용평리조트)는 여름을 맞아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골드슬로프에서 '평창 발왕산 알파카 골드팜(사진)'을 운영한다.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다고 알려진 동물 알파카를 비롯해 알라비, 양, 염소, 프레리도그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만지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동물농장이다. 농장 안에는 코스모스, 백일홍, 메리골드 등으로 꾸민 3만 357㎡ 규모의 꽃길도 꾸몄다.

용평리조트는 '평창 발왕산 알파카 골드팜' 개장에 앞서 25일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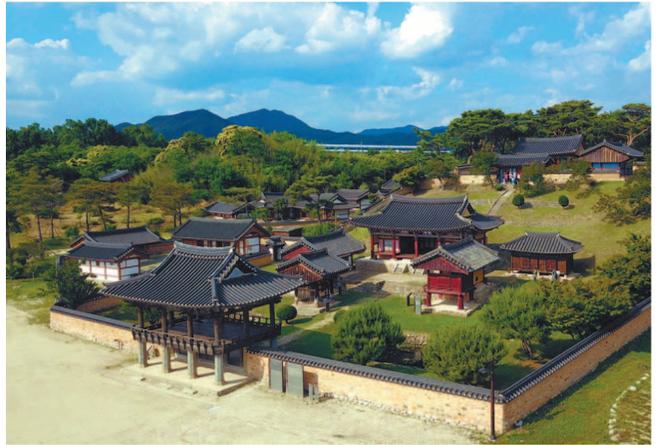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지리산 덕유산 정기받은 웰니스 투어의 명소 함양



함양에서 매년 열리는 건강축제 '함양산삼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심마니 산삼 채취 체험을 하고 있다. 올해 9월6일 개막하는 함양산삼축제는 '2020 함양산삼엑스포'의 전야제 성격으로 진행한다. 오른쪽은 함양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남계서원. 1552년 창건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원으로 현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 | 함양군



심마니 따라 산삼 캐고, 유림의 고장도 보고...

지리산 덕유산 사이 국내 최대 자생지 80여 종 산삼가공제품 개발 판매

천년 역사의 숲 상림·남계서원 등 '산삼+자연' 웰니스 관광개발 활발



함양산삼

예전부터 신비한 효능 때문에 만병통치의 영약으로 불린 산삼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약초 중에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자리한 경남 함양은 국내 최대의 자생지를 가진 산삼의 고장이다. 함양에는 한반도 최대 게르마늄 광맥대가 있어 이곳 산삼은 면역력 증진에 최고인 진세노이드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함양군은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산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양지리산 산

양산삼특구'를 지정해 산삼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고, 국내 최초로 생산이력제를 실시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특히 산삼 특화 사업을 이끄는 '함양산삼6차산업사업단'은 현재 22개 가공업체와 함께 80여 종의 다양한 활성산삼 가공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함양은 산삼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웰니스 관광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다. 함양은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신라 시대 때 조성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숲 상림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남계서원 등 자연, 문화관광 자원도 풍부하다.

●심마니와 웰니스 여행, 함양산삼축제

함양에서는 매년 건강축제인 '함양산삼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굿모닝 지리산, 함양 산삼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상림공원 일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황금산삼

을 찾아라, 심마니의 여정, 산삼캐기체험, 심마니 저자거리(역사문화체험·장터), 심봤다! 소리 지르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심마니가 산삼 캐는 과정을 체험하는 '황금산삼을 찾아라'는 황금산삼과 지역 농산물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심마니의 여정'과 '산삼캐기체험'은 산삼농가에서 산삼과 산약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마니 저자거리'와 '심봤다! 소리 지르기 대회'에서는 장터와 주막에서 열린(함양풍물)을 사용해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다.

함양군은 이번 축제를 '2020 함양산삼엑스포'를 준비하는 전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0 함양산삼엑스포'는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상림공원 및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일원에서 진행한다.

●신선의 정취 천년숲 상림, 영남 유림의 상징 남계서원

함양은 영남 유림 문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장이다. 예부터 '좌 안동

우 함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문이 번성했던 선비의 고장이다. 최치원, 김충직, 정여창, 박지원 등 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손꼽히는 석학들이 지방관리로 근무했다. 상림, 학사루, 정여창 고택, 남계서원, 안의초등학교 등 그들의 자취가 남은 유적지가 있다.

함양산삼축제가 열리는 상림은 손꼽는 역사를 지닌 인공림이다. 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함양태수로 재직하면서 조성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20여종의 나무가 1.6km의 둘레를 따라 조성되어 어린이 자연학습원으로도 좋다.

남계서원은 1552년 개암 강익이 일두 정여창 선생을 제향하기 위해 창건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원이다. 조선시대 영남 유림의 전통을 상징하는 곳으로 서원 건축의 초기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채 깨끗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1974년 경남 유형문화재 제91호, 2009년 사적 제499호로 각각 지정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디스플레이·디자인 보장"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드디어 나온다

9월부터 글로벌 시장 순차 출시 개선 사항에 대한 테스트 검증

화면불량 논란으로 출시가 미루어졌던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사진)가 9월 출격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폴드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 글로벌 시장

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갤럭시폴드는 펼쳤을 때는 7.3인치 태블릿으로, 접었을 때는 4.6인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는 제품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리부용 제품의 디스플레이 불량 논란이 일었다. 결국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출시일이 연기됐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이슈를 철저히

분석했고, 디자인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로 유효성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우선 갤럭시폴드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테두리) 아래까지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화면 보호막이 디스플레이의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갤럭시폴드의 접고 펴는 사용 경험은 유지하면서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했다. 접히는 부분(힌지) 상하단에 보호 캡을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도 강화했으며,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뒷면에 새 메탈 층을 추가해 디스플레이를 잘 보호하도록 했다. 또 힌지 구조물과 갤럭시폴드 전·후면 본체 사이 틈을 최소화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모든 점포가 전초 기지" ...홈플러스, 온라인 사업 확대

21년 온라인 매출 2조3000억 목표

홈플러스가 온라인 사업 강화에 나선다.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사업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되어겠다"며 "일일 배송을 기존 3만3000건에서 12만 건까지 키우고 온라인 매출도 2018년 60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2조3000억 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2021년까지 140개 전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을 추가해 장비와 온라인 배송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대신 기존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를 만들 때부터 온라인 물류



임일순 대표

기능을 염두에 두고 창고와 물류차량 입·출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피커(배송 제품 포장 직원은 기존 1400명에서 4000명으로, 배송차량도 1000대에서 3000대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또 대형마트와 참고형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홈플러스 스페셜의 온라인몰 '더클럽'을 선보이고 참고형 할인점에도 당일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SKT 옥수수 5GX관서 호날두만 골라보세요

26일 팀K리그 vs 유벤투스 생중계

SK텔레콤은 26일 서울 삼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팀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를 모바일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옥수수' 5GX관 멀티뷰에서 생중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청자들은 TV중계 화면 외에 별도로 설치한 4대의 풀HD급 카메라로 촬영한 다양한 시점의 화면을 볼 수 있다. 유벤투스 선수 경기장면을 별도로 보여주는 '스타 플레이어캠', 각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센터서를 상단에 고정 설치한 '부감캠', 감독이 펼치는 작전을 느낄 수 있는 '전술캠', 유벤투스 벤치를 보여줄 '벤치캠'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이 26일 열리는 팀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를 다양한 시점의 멀티뷰로 생중계한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옥수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 시청할 수 있다. 김혁 SK텔레콤 5GX미디어사업그룹장은 "이번 친선경기에서 선보인 5GX 미디어 기술과 멀티뷰 서비스가 스포츠 중계방송의 미래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기자